

축 사



임 채 민 (林 采 民)

보건복지부 장관

“제9회 한·일 마음의 교류 심포지엄”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특히 이 행사를 준비해주신 실행위원회와 유니벨재단, 사무국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1세기 주요 선진국들의 화두는 ‘복지’입니다. 한국도 사회복지발전을 위한 국민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정부재정 중 복지 분야 예산도 다른 분야에 비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복지욕구와 복지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연금급여 및 의료비 지출 등의 복지재정부담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가족지원과 소셜워크-가족을 위한 지역사회기능의 강화』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반가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등 국가차원의 공적 사회보장 틀을 구축하는데 노력해왔고 상당부분 성과를 이루었으나, 이에 더하여 가족의 부양기능 강화와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복지발전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가족기능의 복원 및 강화는 사회복지 실천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과제인 만큼 이 심포지엄을 통하여 가족을 지원하고, 나아가 국가 안녕에 이바지할 수 있는 건설적인 대안이 모색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동양적인 가족적 사고에 바탕을 둔 나라로서 서로에

게 의미 있고 유익한 사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한.일 양국 사회복지계의 활발한 상호 논의와 교류를 통하여 양국이 복지선진국가의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 심포지엄이 앞으로 꾸준히 발전하여 한.일 양국의 사회복지 교류 활성화는 물론 아시아와 전 세계까지 복지관련 논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祝 辞



林 采 民 (イム チェミン)

韓国 保健福祉部 長官

第9回「日韓こころの交流」シンポジウムの開催を心よりお祝い申し上げます。特にこのシンポジウムを準備された実行委員会やユニバーサル財団、事務局、関係者の皆さまに衷心より感謝申し上げます。

21世紀の主要先進国の主な話題は「福祉」です。韓国も社会福祉発展のため国民的な議論が活発に進められており、最近の政府財政の中、福祉分野の予算が他の分野に比べて、早い速度で増えております。

しかし、国民の福祉ニーズと福祉サービスに対する期待感は、より大きくなっており、深刻な少子高齢化現象は、年金給付や医療費支出などの福祉財政負担に対する憂慮をもたらしています。

このような視点から「家族支援とソーシャルワーク ―家族のための地域社会機能の強化―」をテーマにシンポジウムを開催されることは、たいへん時宜を得た有難いことだと申せます。

その間、韓国は公共扶助と社会保険など、国家次元の公的社会保障枠を構築するのに努力してきており、相当の成果を上げておりますが、これに加えて、家族の扶養機能強化と地域社会の特性に合う安定的な福祉サービスの提供が裏付けられないと持続可能な福祉発展は難しいと思います。

家族機能の復元や強化は、社会福祉実践の最も基本的で重要な課題であるだけに、このシンポジウムを通して家族を支援し、更には国家の安泰に貢献できる建設的な方策が模索されることを望みます。

特に、日本と韓国は東洋的な家族的思考に基づいた国として、お互いに意義深く、有益な事例を提供できるものと思います。日韓両国の社会福祉界の活発な議論と交流を通して、両国が福祉先進国家の成功モデルとなるように努力されることを期待します。

また同時に、このシンポジウムがこれからもたゆまず発展し、日韓両国の社会福祉交流の活性化はもちろん、アジアと全世界の福祉関連の議論に肯定的な影響を及ぼすことができるよう望みます。

最後に、この席を共にしていただいたすべての皆さまのご家庭に健康と幸せが満ちることをお祈り申し上げます。

有難うございました。